

## 근대 여성 잡지와 여성 독자의 형성 - 『신여성』을 중심으로 -

김 경 연\*

### 차 례

- |   |                       |
|---|-----------------------|
| 1. 근대적 독서, 젠더, 매체                       | 3. 여성들의 문학 애호와 독서 취향의 |
| 2. 여성 독서의 계몽과 지도 - 여성<br>의 필독서와 금기서의 분류 | 형성<br>4. 맺음말          |

###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잡지 『신여성』을 중심으로 근대적 여성 독자가 형성되는 과정 및 그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기왕의 여성 독자 연구는 대부분 문학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당대 여성들의 독서 경향을 읽어내는 자료로 여성 잡지를 단편적으로 활용해 왔다. 때문에 여성 매체가 근대 여성 독자의 형성과 독서 취향의 구성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문·잡지와 같은 미디어가 조선의 근대화를 추동한 실천 기관이자 근대문학의 형성과 제도화를 견인한 장임을 감안할 때, 여성 매체를 ‘통한’ 여성 독자의 창출과 독서 취향의 형성을 추적하는 작업은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지하다시피 여성 잡지는 근대적 여성 주체, 이른바 신여성이라는 표상을 발명하고, 학교와 더불어 여성에게 새로운 성역할을 훈육한 장이었다. 따라서 여성의 독서를 둘러싼 여성 잡지의 담론 배치 및 매체가 창안한 여성 독자의 정체를 파악하는 일은 비단 독자의 문체에 국한되지 않으며, 여성 매체가 여성들에게 할당한 교양과 매체가 기획한 여성 주체의 본질을 규명하는 작업과 연결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체의식 아래, 『신여성』을 중심 텍스트로 근대 여성 잡지가 여성의 독서를 계몽하고 지도하는 방식, 특정한 방향으로 취향을 조율하는 과정을 주로 담론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본고는 먼저 여성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와 배제해야 할 ‘금기서’를 분류하는 잡지의 언설에 주목했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연애소설을 ‘여성 금기독물’로 지정하는 한편 ‘여성적인 읽을거리’로 성별화하고, 교육 정도와 무관하게 여성 독자들 대부분을 연애소설을 읽는 저급한 대중독자로 분류하는 상황에 착목했다. 이러한 성별 정치는 잡지가 여성 독자들의 읽을거리를 결정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여성들이 문학을 포함한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독자가 되기에 미흡하다는 매체의 판단이 본격적인 문학에 접근하고자 하는 여성 독자들의 욕망을 유예시킨 대신, 대중적인 ‘여성용 독물’을 구성·배치한 것이다. 이는 여성 잡지 속에 실제 수록된 읽을거리의 양식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본 논문은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먼저 여성용 읽을거리를 결정하고 배치하는 담론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주제어 : 여성 잡지, 여성 독자, 근대문학, 여성 필독서, 여성 금기서, 여성용 독물, 독자 취향

## 1. 근대적 독서, 젠더, 매체

근대의 시작과 더불어 새로운 지식의 학습 경로로 독서가 독려된다. 전대의 유교 교육을 망국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구습·구제도와 대결하면서 근대인으로 변신하려던 계몽주체들에게 독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주요한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마에다 마이의 지적처럼 근대인이 되기를 욕망하는 이들에게 이제 그들의 인생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양친에게서 받은 교훈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인 것이다.<sup>1)</sup> 이광수는 1915년 『청춘』에 발표한 「독서를 권함」에서 문명인의 탄생 조건으로 독서를 적극적으로 권장한 바 있다.

서적은 사상과 지식을 간직한 창고이니, 글이 생긴 이래로 수천대 聖人賢哲의 캐어놓은 金玉 같은 진리와 교훈과 똑같은 情의 美를 그린 것이 다 그 속에 있는지라 吾人이 원시적 빈궁하고 누추한 야만의 상태를 벗어 버리고 풍부고상화려한 문명의 생활을 現出하여 조화옹의 경영에 놀라운 대교정을 준 것은 실로 이 창고에 쌓아 놓인 보물의 힘이 로다. (중략) 독서는 정신적 영양이매 정신적으로 사는 문명인은 독서로 살아야 할지오. 하물며 문명정도 어린 민족은 이것으로 제 지위를 높여야 할 것이며 오는 시대의 주인이 되려는 청년은 독서로 향상 문명의 최고점과 병행하여야 하리로다.<sup>2)</sup> (강조는 인용자)

문명인을 육체보다 정신을 중히 여기는 자로 규정한 이광수는 문명인, 곧 근대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독서를 강조한다. 독서는 “오인보다 이상 되는 오인으로 진화하기” 위한 조건이며, 문명의 정도가 떨어진 조선 민족이 “제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지시된다. 따라서 “오는 시대

1) 마에다 마이 지음, 유은경·이원희 옮김, 『일본 근대 독자의 성립』, 이룸, 2003, 161쪽.

2) 이광수, 「독서를 권함」(『청춘』 4호, 1915. 1), 『이광수전집』 1권, 1962, 삼중당, 560-562쪽. 이하 인용문의 강조는 인용자.

의 주인”으로 호명된 청년들에게 “문명의 최고점과 병행”하는 독서는 선택이 아니라 일종의 신성한 명령으로 하달되고 있다. 이광수에게 독서는 근대적 교양의 습득을 넘어 민족 개조의 전제로 상상된 것이다.

새로운 민족 구성원이 되기 위한 독서의 필요성은 3.1운동 이후 전개된 문화운동의 열기 속에서 한층 부각되었다. 조선의 신문화 건설과 민족 개조를 선언한 문화운동의 주체들은 수양을 통한 개인의 인격완성을 문화의 의미로 이해하고, 서구에서 유입된 예술·과학·도덕·종교 등을 습득해야 할 문화의 내용으로 간주한다.<sup>3)</sup> 독서는 이러한 서구적 지식을 학습하고 인간의 내면(정신)을 계발하는 방법으로 적극 홍보되었다. 『개벽』의 창간 주체였던 이돈화 역시 독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독서는 취미니 독서의 취미를 모르는 자는 어떤 점에서 불행의 인물이라 할 수 있나니 **書는 실로 취미의 보고이며 취미의 왕국이라 할 수 있다 誦하여 나더러 書의 취미를 誦케하라** (중략) 원래 인생은 취미라 취미로써 生하고 취미로써 死하나니 취미는 卽 천태만상이라 고상한 자도 있스며 비루한 자도 잇는 것이라 고상한 취미에 不就하는 자는 비루에 취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 불행이 우리 조선인은 독서의 취미를 아지 못하는 자 多한지라 그럼으로 취미의 방면이 스스로 반대방향으로 취하여 음주, 악연, 권세 등의 악덕으로 변하는 자-比比皆然하니 조선인 된 자-삼가 독서의 취미를 체험하여 僞의 취미로 眞의 취미에 나아가기를 切望하는 바이다 <sup>4)</sup>

인용문에서 이돈화는 취미를 ‘비루한’ 것과 ‘고상한’ 것으로 분별하고 독서를 “고상한 취미”, 혹은 “眞의 취미”로 규정한다. 조선인들은 독서를 모르는 자가 많고 독서를 모르는 것은 불행한 일이며, 따라서 조선인들은 독서를 통해 행복한 민족으로 개조될 수 있다는 것이 이돈화의 논리

3) 박찬승, 『한국근대 정치사상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2, 210쪽.

4) 이돈화, 「진리의 체험」, 『개벽』 제27호, 43-44쪽.

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독서는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표지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고양되는 상황이다.

신인간·신민족 탄생을 위한 독서의 요구는 계급뿐만 아니라 성별 역시 초월한다. 민족 개조의 사명을 할당받은 ‘신여자’의 조건은 외양이나 스타일의 창출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 새 글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얻어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이라는 담론이 당대 미디어를 타고 확산되었다.

고등보통학교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정도를 졸업한 여자 여러 동무야, 당신들의 가진 공통한 일홈은 무엇이나 新女子이다. 舊女子가 아니오 新女子이다. 新女子이면, 입은 옷도, 신는 구두도, 하는 말세도, 무엇도무엇도 새로워여 되겠지만, 먼저 당신네들의 머리가 새로워야 할 것이다. (중략) 이러한 당신들이기 짜문에 다시 한 번 못는다. **당신들의 머리는 완전히 새로워졌느냐, 새로워지기 위하여 나날히 새글을 넓 더냐고**, 나는 당신들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보았다. 산보 잘하는 사람을 보았다. (중략) 그러나 **간단 업시 소문 업시 책을 보고 잇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물론 소문업시 보는 것이라 보아도 우리가 보는 줄을 모르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마는, 무엇보다도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을 보아서 늘 머리를 새롭게 해야 한다. 머리 속에 구덕이가 잇고는 더 불일이 업는 것이다.**<sup>5)</sup>

‘독서’는 구여성과 신여성을 구별하는 표지가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신여성과 ‘사이비’ 신여성을 가름하는 심급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신여성의 조건으로 독서를 적극 추동한 이들이 정작 여성의 독서를 바라보는 태도가 이중적이라는 사실이다. 여성의 독서는 “천유여년 전으로부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현상이며, “現국은 누구보다도 조선 여자의 더할 수 업는 행운이 돌아온 기회”<sup>6)</sup>로 긍정되는 한편, 여성들을 타락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으로 빈번히 지목되기도

5) 小春, 「요새의 朝鮮 新女子」, 『신여성』, 1923. 11, 59쪽.

6) 「여자 독서열의 격증과 오인의 금지 못할 환희」, 『조선일보』, 1926. 12. 5.

했다. 예컨대 조선 최초의 ‘동성끼리의 철도정사사건’으로 충격을 준 홍 옥희와 김용주의 자살 원인으로 거론된 것이 그들의 문학 독서였다. 사회의 명망가들은 두 여성들이 평소 “문학서류를 애독하여 항상 세상을 비판하는 모양이 보히었었다”<sup>7)</sup>든가, 소설을 탐독했는데 그 내용이 죽음을 찬미하는 글들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런가 하면 여성 작가 김명순을 소설화한 『김연실전』에서 김동인은 연실의 독서 범위를 연애소설에 한정된 협소한 차원으로 환기하고, 연애소설 독서가 그녀의 성적 방종과 허영심을 잉태한 원인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여성의 독서에 대한 이 왜곡된 시선은 고스란히 여성 글쓰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김동인은 김연실의 문학 창작 행위를 연애소설 중독에서 발로한 허영심과 성적 욕망의 표현으로 형상화했다. 김동인에게 여성은 교육의 정도와 관계없이 이른바 “참예술적 작품”, “참문학적 소설”<sup>8)</sup>을 향유할 수 있는 감식안을 결여한 독자이며, 때문에 연애 이야기도 탐정 이야기도 아닌 “인생의 정신이요, 사상이요, 자기를 대상으로 한 참사랑이요, 사회개량, 정신합일을 수행할 수 있는”<sup>9)</sup> 근대문예를 생산하는 작가가 되기에 도 함량미달이다.

여성의 독서를 둘러싼 이 이중적인 시선은 계급과 성을 초월한 근대 독서에 비가시적인 성별 정치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환기한다. 식민지의 계몽 지식인들에게 여성의 독서는 조선의 근대적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긍정적 사건인 동시에 개조의 기획을 위협하는 불안으로 인식된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책 읽기는 독려되는 동시에 관리되어야 할 사항이었으며, 여성에게 부과된 민족 개조의 방향을 균열하거나 일탈할 수 있는 여성의 독서는 제한되거나 금지될 필요가 있었다. 이 위험한 독서의 목록에 ‘문학’, 특히 ‘소설’이 빈번하게 오른다는 사실은 주목된다. 남성

7) 「청춘 두 여성의 철도자살사건과 그 비판」, 『신여성』, 1931. 5, 30쪽.

8) 김동인, 「소설에 대한 조선 사람의 사상을」, 『김동인전집』 6권, 1976, 삼중당, 264쪽.

9) 위의 글, 265쪽.

지식인들의 시선에 포착된 여성 독자들은 대개가 문학의 본령에서 제외된 연애소설이나 신문소설 같은 통속물에 탐닉하는 저급한 취향의 독자들이거나,<sup>10)</sup> 현실과 허구를 분별하지 못하는 미숙한 독자들이었다.<sup>11)</sup>

조선의 신여자 창출을 기획하고 신여성의 조건과 규범을 할당한 근대 여성 잡지는 여성 독서에 관한 각종 담론을 형성하고 유포한 장이었다. 여성들에게 근대적 독서를 계몽한 기관인 동시에 ‘필독서류’와 ‘금지서목’을 분류하고 여성들의 독서를 지도하는 한편, ‘여성용’ 읽을거리 혹은 ‘여성적’ 읽을거리를 구성·배치하면서 여성들의 독서 취향을 형성한 미디어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근대 여성 잡지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은 여성의 독서를 견인하는 화려한 계몽적 언설과 실제 여성 독자들에게 제공된 읽을거리 사이의 간극이며, 근대문학 특히 근대소설과 조우하고자 하는 여성 독자들의 욕망이 유예되거나 좌절되는 장면이다. 이는 근대문학과 근대매체의 친연적인 관계, 특히 1920년대 이후 근대문학의 제도화 과정에서 신문이나 잡지가 담당했던 역할을 고려할 때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신문·잡지와 같은 근대 매체는 식민지 대중들에게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면서 조선의 변화를 추동하고 근대적 취향을 형성한 기관이자, 근대 문화의 정점으로 부상한 근대문학을 소개·번역·유통하는 통로였다. 아울러 독자투고나 현상문예 등을 마련, 문학 독자를 다시 근대적 작가로 변신시키는 장으로 역할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 매체는 당대 “사상가의 직, 교육자의 직”<sup>12)</sup>을 겸한 ‘문사’의 지위를

10) 김동인은 신문소설의 애독자가 가정부인과 학생이 대부분이며, 그 밖에는 직공군과 소점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학 독자를 성별과 계급에 따라 나누고 여성과 하위층을 이른바 고급문예를 향유할 수 없는 대중적 독자로 분류한 셈이다. 김동인, 「신문소설은 어떻게 써야 하나」, 『김동인전집』 6권, 223-225쪽 참조.

11) 여성 독자들을 비판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던 ‘문학중독’, ‘소설중독’이라는 말은 여성들을 소설과 거리를 두지 못하고 작품 속의 현실을 실제 현실로 오인하는 미성숙한 독자라는 비판이 함축되어 있다.

여성들에게 부여하는 데 상당히 미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혁명’이요 ‘예술’로 상승한 문학, 더욱이 근대문학의 총아로 부상한 소설 독자로 여성을 견인하려는 의지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는 1923년 개벽사가 창간한 잡지 『신여성』을 중심으로 근대 여성 독자의 형성 과정과 그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신여성』은 “조선 구가정 부인의 지식계발”<sup>13)</sup>을 목적으로 개벽사가 1922년 창간한 『부인』을 폐간하고, 1923년 “현대 여학생”<sup>14)</sup>을 주 독자층으로 겨냥해 발간한 여성 종합지이다. 1927년부터 1930년까지 4년의 정간 기간을 제외하고 1934년까지 약 8년간 발행되었으며,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전반기까지 가장 폭넓은 여성 독자들을 확보했다. 따라서 『신여성』은 새롭게 부상하는 근대적 여성에 관한 담론을 생산하고 확대한 장이었을 뿐만 아니라,<sup>15)</sup> 이후 등장한 여성 잡지의 형식과 내용을 배태한 기원이기도 하다. 때문에 『신여성』은 근대 여성 독자의 형성과 매체의 역할을 젠더적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이 논문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주요한 텍스트가 된다.

다음 장에서는 『신여성』을 중심으로 여성 매체가 여성의 독서를 계몽하고 독서 구역을 넓히는 한편, 여성이 읽어야 할 책과 금기서류를 분류하는 언설들을 배치하면서 여성의 독서에 개입하는 국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2) 이광수, 「문사와 수양」, 『이광수 전집』 16, 삼중당, 1963, 18-19쪽.

13) 현철, 「알아두어 필요할 연극 이야기」, 『신여성』 2권 6호, 95면. 현철은 이 글의 서두에서 개벽사가 『부인』을 폐간하고 『신여성』을 창간한 배경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으며, 현철 자신이 『부인』의 편집을 맡았던 사실을 회고하고 있다.

14) 위의 글, 95쪽.

15) 김수진, 「신여성 담론 생산의 식민지적 구조와 『신여성』」, 『경제와사회』, 2006년 봄호, 258쪽.

## 2. 여성 독서의 계몽과 지도 - 여성의 필독서와 금기서의 분류

근대 여성 매체는 “병적 개성을 버서버리고 깊히 내면에 못쳐잇는 진실한 本來性을 찾는”<sup>16)</sup> 여성, 혹은 “구든 의지력과 반역의 정신과 철저한 모성의 자각과 현실 생활에 대한 깊은 성찰”<sup>17)</sup>이 있는 조선의 참된 신여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여성들에게 독서를 적극 계몽한다. 부덕(婦德)에 어긋나는 것으로 경계했던<sup>18)</sup> 여성의 독서는 현대여성으로 변신하기 위한 고상한 취미로 고양되며, 여성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난관

16) 이돈화, 「세상에 나온 목적」, 『신여성』, 1923. 11, 2-3쪽.

17) 팔봉산인, 「소위 신여성 내음새」, 『신여성』, 1924. 9, 23쪽.

18) 주지하다시피 전근대 여성들의 독서는 유교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을 뿐 대부분 금기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한글의 창안은 ‘사대부-남성-공적인 문(文)’의 세계에서 배제되고 축출된 여성들에게 읽고 쓰기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진문(眞文)의 세계 밖에서 제3의 문학장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글을 통한 여성들의 읽고 쓰기의 확대는 지식을 향한 여성들의 욕구와 새로운 읽을거리에 대한 욕망을 불러왔고 이는 ‘규방소설’ 및 ‘규방가사’, 곧 ‘규방문학’의 장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특히 사대부 부녀자들의 세계에서 주로 읽었던 규방소설에 대한 여성 독자들의 전폭적 지지는 17세기 이후 가문소설이나 군담소설 등 다양한 한글소설 창작과 확대를 자극했다. 조동일은 전근대 국문소설의 장에서 독자 및 작가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우세했던 점을 전근대 한국소설의 특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중국소설이 대개 과거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거나 세상에 불만을 품은 선비들이 자신을 감추고 문학을 통해 세상과 맞서던 ‘작가소설’이며, 일본소설이 출판인들의 기획에 의해 상품으로 만들어진 ‘출판인소설’인 반면, 한국소설은 독자들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의해 형성되고 발전한 ‘독자소설’이라는 것이다. 조동일은 이러한 독자소설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여성들이며, 한글소설에 관련한 여성 독자가 남성 독자보다 많고 우세했으므로, 소설 창작이나 소설 번역에 참여한 여성 작가의 비중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높았다고 지적한다.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 1988; 백순철, 「규방 공간에서의 문학 창작과 향유」, 『여성문학연구』 14호; 정창권, 「장편 여성소설의 글쓰기 방식」, 『여성문학연구』 2호, 1999;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고론 2』, 지식산업사, 2001 참조.

을 여성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실력 양성의 과정으로 강조되기도 한다.

만일 교과서 이외의 독서를 하게 되면 「애는 문학소녀란다」라거나 또 「애는 사상가야」라고 빈정대게까지 되는 한심한 일이 생기고만다. 적어도 현대여성이 여성으로의 자각이라거나 인간으로의 도저한 각성이 있다면 독서안했다는 것이 유일의 치욕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사상, 문예, 더 나아가 종교, 철학, 정치, 경제에까지 일정한 상식쯤은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독서의 힘을 빌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적어도 독서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sup>19)</sup>

여성을 싸고 도는 만흔 문제 여성이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난관 이 모든 것을 자각하고 나갈 힘은 만히 듯고 만히 읽고 스사로의 실력을 기르는데 잇는 것입니다. 무식하다고 어리석다고 남편에게 수모받는 것이나 남자들에게 우습을 받고 십지 안커든 하다못해 신문이나 잡지라도 매일 계속적으로 읽어서 힘을 기릅시다. 허술한 거 갖하도 읽고나면 보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외국여자들의 독서열을 우리 여성들도 본받아 새해부터는 「잡자기 전에 한 장식이라도」 책을 읽도록 합시다.<sup>20)</sup>

인용문에서 이현구는 독서가 취미로 자리 잡지 못한 조선사회에서 여성의 책 읽기에 대한 폄훼적 시선이 있음을 비판하고, 자각한 현대여성이 되기 위해 독서를 생활화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독서는 사상, 문예, 종교, 철학, 정치 등 “상식”을 습득하기 위한 수단이며, 따라서 독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덕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의 결핍을 의미하는 “치욕”이 된다. 이현구가 근대인으로 변신하기 위한 독서를 강조했다면, 김자혜는 여성임을 자각하기 위한 독서를 역설하고 있다. 독서는 “여성을 싸고 도는 만흔 문제”를 발견하는 계기이며, “여성이 해결해야

19) 이현구, 「현대여학생과 독서」, 『신여성』, 1933. 10, 31쪽.

20) 김자혜, 「책 읽읍시다」, 『신여성』, 1933. 1, 44쪽.

할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실제적 힘으로 강조된다. 독서를 통해 남성의 억압에 대항하는 여성 주체의 탄생을 구상하는 필자는 잡지의 독자들을 “우리”로 호명하면서 여성으로서의 동질감을 자극하고, 독서열의 모범적 사례로 “외국여자”를 언급함으로써 국경을 초월한 여성의 연대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독서의 취미화, 독서의 일상화를 계몽하기 위해 『신여성』은 종종 문명한 서구 여성들의 독서 취미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 여학생들의 생활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독서는 음악, 테니스와 더불어 프랑스 여성들의 “비상하게 고상한” 취미생활로 부각되며, 일요일이면 가족이 모여 “유익하고 좋은 작품을 읽고” “읽은 후에는 반드시 비평”<sup>21)</sup>을 하는 독서 취미를 조선 여성들이 본받아야 할 사례로 제시한다.

독서의 중요성을 계몽하는 언설과 더불어 여성의 독서 규범을 구획하고 지도하려는 담론 역시 주요하게 배치되었다. 독서를 하라는 요구보다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신여성의 정의를 위반하지 않는 독서였으며, 따라서 신여성의 역할에 부합하는 독물(讀物)과 그렇지 않은 읽을거리를 선별하는 작업은 필수적이었다. “례기(禮記) 렬녀전(烈女傳)가튼 썩은 냄새가 나는 사상과 관념”<sup>22)</sup>을 전파하는 서적들은 여성의 금기서목 중 단연 첫 번째였다. “세상과 가티 나가랴”<sup>23)</sup>는 신여성의 독서는 “묵고 썩은 모든 문명을 파괴하고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도덕과 새로운 룰리를 세우기에 즉 인류문명을 조직적으로 완성식히기에 도움이 될”<sup>24)</sup> ‘새글’이 되어야 했다.

‘새 글’의 목록에는 무엇이 배치되었을까. 먼저 목록의 상위에 ‘신문’과 ‘잡지’가 올라 있다. 신문·잡지는 규범적 틀에 갇힌 학교교육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의 “활교훈”, 즉 시시각각 바뀌는 세계나 일상의 변화를

21) 일기자, 「불란서의 여학생 생활」, 『신여성』, 1924. 3, 19-21쪽.

22) 신식, 「가을과 여자의 독서」, 『신여성』, 1926. 10, 6쪽.

23) 위의 글, 5쪽.

24) 위의 글, 6쪽.

전달하며, 문명인이 지녀야 할 “보통상식”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교육”의 장으로 홍보된다. 신문·잡지를 매일, 매달 읽지 않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과 다름없다는 극단적 수사가 동원될 만큼, 여성을 근대 매체의 독자로 견인하려는 욕망이 강하게 피력된다.

신문잡지(新聞雜誌)가 우리생활에 얼마만치나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말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아시겠스나 저 문명국이라는 하는 구미(歐米)에서는 이러한 말을 한다 합니다 『그날의 신문 그달의 잡지를 읽지 아니하면 그날그달은 생명을 잃어버리었다고』(중략) 신문잡지에 쓰는 말과 학교서 같으키는 문귀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서는 같으키는 말이나 문귀는 대개가 고정(固定)됩니다 그러함으로 밤낮할것업시 변해가는 세계의 활무대(活舞臺)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제그제의 말 그 찰나 그 찰나의 술어(術語) 혹은 유행하는 말로 보도하는 신문잡지를 힘있게 넓키기에 너무 차이가 나는 까닭입니다 신문을 충분히 읽지 못한다면 잡지의 기사도 철저하게 알지 못할 것은 사실일 것이외다. 이러한 사람이 잡지를 본다면 겨우 소설이나 읽는데에 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소설을 읽는다 해야 수박 것겹덕이 먹는 세음이지 작자(作者)의 고심해서 생각한 깊은 인생관이라던지 신비한 철리(哲理)를 알지 못하고 지내간다 하면 말로만 잡지를 보고 신문을 읽었 다하지 무슨 효과가 잇겠습닛가. 이러한 데서 소설중독 문학중독이 생기는 것도 적지 아니할 것이 외다. (중략) 이러한 것은 학교에서 힘써 학생에게 불만한 것을 지명해서 같으키여주기도하고 보는 방법을 알으키여주어서 학교교육 이외에 사회교육을 일편으로 같으키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자조 지어준다면 학생생활에도 다대한 유익이 잇스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읽지 못하게 하는 한편에 폐해가 잇는 줄로 나는 생각합니다<sup>25)</sup>

필자 정병기는 근대 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신문·잡지를 여학교에서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며, 오히려 신문·잡지에서 볼 만

25) 정병기, 「여학생과 신문잡지」, 『신여성』, 1924. 12, 15-16쪽.

한 것을 선별해 읽을 수 있는 능력과 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들이 소설을 읽는 통로로만 신문잡지를 소비하거나, 더욱이 작가의 인생관이나 진리에 접근하려는 심층적 독서보다 표피적 읽기에 급급한 “소설중독” “문학중독”에 빠지는 것은 신문잡지를 제대로 읽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는 학교 교육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문잡지의 구독은 1920년대 문화운동 과정에서 그 자체가 계몽의 주요한 내용이기도 했다. 당시 문화운동을 전위에서 이끌어 간 각종 ‘청년회’는 지식욕의 향상과 독서취미를 증진하기 위해 ‘대출문고설치’는 물론 ‘독서회’ 및 ‘신문잡지구독회’를 주요 사업으로 기획했으며, 신문잡지의 구독 열람은 독서의 필수적인 항목으로 설정되었다.<sup>26)</sup> 신문화 건설의 견인차로 신문 및 잡지의 열람이 강조되면서 192,30년대 여학교 도서관에도 신문잡지의 구비가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7)</sup>

한편 근대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식 습득을 넘어 “영원한 정신적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 의의 잇는 독서”<sup>28)</sup>가 필요하다는 주장들 역시 제기되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문예서류’나 ‘사회과학서’ 같은 사상서들이 조선의 신여자들이 읽어야 할 “정당한 글”의 목록에 새롭게 등재된다. 사상서나 문예서류는 “인류문명을 완성할 과학적 지식을 엮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새 사상과 새 지식을 세우고 엮기 위하여”<sup>29)</sup> 읽어야 할 필독서로 지정되고 있다.

26) 박찬승, 앞의 책, 241쪽 : 박찬승, 『민족주의의 시대』, 경인문화사, 2007, 109쪽 참조.

27) 동아일보에서 창간한 여성 잡지 『신가정』은 「시내 각 여학교 도서관역방기」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 동덕, 정신, 이전(梨專) 등 여학교 도서관을 둘러본 기자는 잡지와 신문이 빠지지 않고 구비되어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C기자, 「시내각여학교 도서관역방기」, 『신가정』, 1934. 10, 114-118쪽.

28) 이현구, 앞의 글, 33쪽.

29) 신 식, 앞의 글, 6쪽.

도서실 그곳에서는 무제한인 자연교육이 숨어 있는 곳이다 반드시 여성을 사상적으로 선도할만한 쏘는 사회의 과학 세계 형편 축소해야 조선의 되는 일과 외에 문예도 좀 고급문예를 열람케 하여야 한다 그 책은 영자(英字) 소설가든 아무 실익 업는 책 썩은내 나는 종교(宗教)서류가든 것만 라열하는 것은 너무나 학생들의 사상을 암매하게 하고 짜라서 사상을 허영의 길로 인도하고 일정한 목덕이 업시 쓴 정신 생활을 하게 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학생계의 도서영향이다 이 엇지 가석하고 가통할 일이 아니라 학교 당국에서는 더욱이 신년부터는 도서실을 더 확장하고 내용이 충실한 사상이 순화될 그런 서책을 만히 라열하여 학생으로하여금 사회의 과학을 알게함이 조흥가한다. (중략) 그럼으로 우리는 좀 고급으로 사회과학서류를 탐독하기로 설 맹약하여야 할 것이다.<sup>30)</sup>

여학생은 학교 밖의 사회를 알아서는 안된다는 법이 없다. 바다와 같이 넓은 세상 그 세상에서 엮으러지고 일어나고 하는 크고적은 인생사리 사는 일, 싸우는 일, 괴로운 일, 기쁜 일, 기쁜 일, 눈물과 웃음, 진실과 거짓이 모든 것을 가르켜주는 것은 교과서가 아니오 검은 칠판이 아니오 오직 문학과 사회과학의 서적들뿐이다. 한번은 그 문을 통과하고야말 남녀간 사랑이라는 것의 진실한 자태도 그 내용도 또 남성의 심리도 희망도 환멸도 그리고 현실생활의 계급적 전 내용을 적나나하게 보여주는 것은 문예작품이다. 사회생활의 복잡한 내용-개인과 집단과, 사회와 또한 사회, 계급, 또한 계급, 정복과 피정복, 국가와 또한 국가, 이 모든 것의 서로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변하여 오고 그리고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현재 조선의 이 현실에서 삶을 누리고 있는 여성으로서 깨닫고 하지 아니 하면 아니될 일이 어떠한 것이 라함을 알으켜주는 것은 사회과학이다. 명년에 학교를 졸업하게 된 중등이상의 여학생들 중에 과연 사회과학과 문학에 관한 초보적 지식이나 마 가진 이가 있는가 없는가?<sup>31)</sup>

『신여성』의 기자는 여학교 도서실 설비가 대개 미흡하며 미션계 여학

30) 일기자, 「여성평단 - 독서에 대하여」, 『신여성』, 1926. 2, 20-21쪽.

31) 김기진, 「조선여성이여 독서하라」, 『신가정』, 1934. 10, 112-113쪽.

교를 겨냥한 듯 비치된 도서들이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영문 소설이나 종교 서적들이 대부분이라 조선 여학생들의 학문 진작이나 사상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허영의 길로 인도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문예물을 읽되 고급문예를 선택하고, 여성의 사상을 순화시키기 위한 사회과학서류의 탐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잡지 『신가정』<sup>32)</sup>에 수록된 김기진의 글 역시 여성이 학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현실에 눈 뜨기 위해서는 자발적 독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독서의 대상은 문학이나 사회과학 서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관계의 복잡다단함을 일깨우고 조선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여성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는 것이 사회과학이며, 인생의 희로애락이나 남녀 간 사랑의 진실한 자태는 물론 “현실생활의 계급적 전 내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문학이라고 김기진은 정의한다.

여성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류에 문학을 배치하였으나 여성과 문학, 특히 여성과 소설의 조우에 대해서 대부분 남성 필진들인 담론 주체들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문학을 고급문예와 하품문예로 구분한 이들에게 여성 독자 대부분은 하품문예물의 소비자로 인식되었으며, 따라서 여성의 문학 독서, 특히 소설 독서는 여성을 타락과 방종에 이르게 하는 위험한 계기일 수 있다는 견해들이 빈번히 제시된다.

(가) 그런덕 이 시대에는 별로히 모-든 것을 알나고흐는 막음이 잇습 니다 그 중에도 더욱이 남녀 간에 관한 事情입니다. 그럼으로 누구든지 이 時代에는 별로히 조와흐야 신문상에 기재되는 小說을 날마다 큰 滋味로 기다리게 됩시다. 이러한 시기에 小說을 보게함은 디오 좃지 못한 결과를 생게 합니다 일노뵈허 차차 연상을 이르켜가지고 공상을 흐며 煩悶을 흐게됩니다. 그런 고로 이 시대에는 小說을 嚴禁하난 것이 妥當을 생각합니다.<sup>33)</sup>

32) 『신가정』은 동아일보사에서 1933년에 창간한 여성 종합잡지이며 1936년 폐간된다.

33) 춘정생, 「처녀의 번민」, 『여자계』 2호, 18쪽. 『여자계』는 1917년 동경에 유학하

(나) 또 이러한 경향이 있다. 조선책사가든 데서는 요사이 새로 창작인 하품문예소설 그런 것만을 사간다. 이것이 즉 녀학생의 사상경향을 웅변으로 말함이다. 이러한 하품문예소설 등이 얼마나 우리 녀학생계의 사상을 악화케하는지 알 수 없다.<sup>34)</sup>

(다)

方 : (전략) 여학생의 취미를 지도한다면 어떤 것을 지적할 수 있을가요.

李(益) : 그야 가정형편에 따라 다르겠지요. 쓸조아적이라면 피아노, 율강 가튼 것을 작난 식히는 것이겠지만 근본으로 무취미한 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취미라고 하여야 별것 업지요. 文學방면에 대한 것은 소년시대에는 어느 정도까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략)

方 : 여하튼 여자라면 남자와 한평생 가티 지낼 터이면서 남자의 정체를 안가르켜 준다는 것은 말 못하는 외국사람에게 시집보내는 것과 다를 것이 업겠습니까. 남자의 성격, 심리 이런 것을 알자면 小說을 읽히는 것밖에 업지요. 아마.

李(星) : 다소간 그러케지만 조선 가정에서 거기까지 생각할 가정은 아마 몇몇개 업겠습니까. 상당한 나이가 찬 뒤면 모르지만 어린 사람에게에는 小說이 문제지요.<sup>35)</sup>

인용문 (가)에서 필자는 처녀 시절은 무용(無用)한 번민이 많은 시기이며 이 시기에 소설을 읽는 것은 쓸 데 없는 번민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공상에 빠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소설을 엄금하라고 훈계한다.

---

고 있던 여학생 단체인 '조선여자친목회'에서 발간한 잡지로 『학지광』의 자매지라고 일컬어졌다. 2호부터 김덕성, 허영숙, 나혜석, 황애시덕 등여자친목회가 편집을 주관하였으나, 전영택과 이광수가 고문격으로 활동했고, 필진에는 남성들이 많았다. 김수진, 『1920~30년대 신여성 담론과 상징의 구성』, 서울대 박사논문, 2005. 8, 147-148쪽 참조.

34) 일기자, 「여성평단-독서에 대하여」, 『신여성』, 1926. 2, 21쪽.

35) 「학부형끼리의 여학생문제좌담회」, 『신여성』, 1931. 6, 32-33쪽. 이 좌담회에는 당시 『신여성』의 편집인이었던 방정환과 이익상, 채만식 등이 참석했다.

(나)의 『신여성』의 기자 역시 여성들, 특히 여학생들이 하품문예소설의 주요 독자이며 이러한 소설 읽기가 여학생들의 사상을 악화시킨다고 우려하고 있다. 젊은 여성의 소설 접근을 특히 경계하는 언설은 『신여성』이 주최한 학부형 좌담회에서도 목격된다. 참석자들은 여학생 자녀에게 권해야 할 취미로 독서가 적합하며 소설 읽기를 통해 남성의 성격이나 심리를 배울 필요가 있긴 하나, 성숙하지 못한 여성이 문학, 더욱이 소설을 읽는 것은 문제적이라고 지적한다.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이 새롭게 투신할 가치의 영역으로 문학이 옹호된 것과는 달리, 조선의 처녀들에게 문학은 금기나 경계의 영역으로 분리되고 있는 지점이다.

여성들의 사상을 악화시키는 하품문예소설은 곧 ‘연애소설’을 의미했다. 주지하다시피 자유연애는 근대인에 할당된 사명이자 신과 구가 대결하고 분리되는 지점으로 근대계몽기 이래로 적극적인 의미 부여가 되었다. 말하자면 식민지 조선에서 연애는 근대적인 라이프스타일이자 전근대의 유교 이념과 쟁투하던 이데올로기였으며, 따라서 사적 영역인 동시에 공적 영역으로 군림했다. 연애지상론, 연애신성론은 1910년대 이광수는 물론 1920년대 초반 지식인들을 통해서도 꾸준히 부각된다. 예컨대 황석우는 연애를 “종교와 동일한 지위를 점령”하고 예술과 합병한 “신성불가침”<sup>36)</sup>의 영역으로 옹호한다.

그러나 자유연애가 사회적으로 범람하기 시작한 1920년대 이후 연애 혹은 낭만적 사랑의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연애신성론을 취하하거나 재정의하려는 움직임 역시 나타나기 시작했다.<sup>37)</sup> 예컨대 이돈화는 연애를 “인류의 강한 力의 발표되는 본원”이며 “人心의 중심”으로 긍정하는 한편, ‘신성한’연애와 ‘성욕적’연애를 구별하고 전자만을 “진리적 연애”, 곧 진정한 연애로 승인하고 있다.

36) 황석우, 「연애」, 『개벽』 22호, 49-50쪽.

37) 1910년대 연애신성을 주창했던 이광수 역시 1920년대에는 연애 비판자로 돌아선다. 1918년에 쓴 『개척자』와 1925년에 발표한 『재생』은 연애에 대한 이광수의 시각 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근래 청년남녀의 間에 흔히 戀愛神聖문제가 유행되어 연애를 절규하는 調가 높하감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남녀의 性慾間에 生하는 愛의 觀念으로써 이를 연애로 보고져 아니한다. (중략) **연애라 하면 결코 다 신성한 것이 아니오 연애를 옹호하는 곳에 처음으로 신성의 의미가 발현하는 것이다** 동일한 남녀의 연애라 할지라도 연애의 노예가 되어 거경자살을 逐하며 사업을 廢하며 방랑에 流함과 가튼 것은 이 실로 연애의 악용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나의 이른바 신성한 연애라 하는 것은 異性の 연애를 해탈하고 진리적 연애를 把持하는 것이니**(후략)<sup>38)</sup>

“이성의 연애”를 배제하고 신성한 연애로 추출된 “진리적 연애”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기(私氣)”, 즉 사사로운 욕망을 삭제하고 대의를 위한 사업, 곧 식민지 조선인들의 최고 이상인 “민족의 발전”에 집중하는 “희생적 정신”<sup>39)</sup>으로 전화된 것이다. 따라서 연애의 분할과 위계화가 나타나 1920년대 이후 공적인 열정으로 수렴되지 못한 연애는 진정성이 부재한 성적 욕망의 표현이며 타락의 징후로 가치절하 된다. 특히 1920년대 여학생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sup>40)</sup> 학교 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 연애의 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근대의 가능성을 표상하던 연애의 의미가 재고되거나 부정되는 양상이 뚜렷해진다. 자기 발견과 여성 해방의 출구로 연애를 재전유하려는 여성들의 욕망은 근대의 악폐(惡弊)나

38) 이돈화, 「진리의 체험」, 『개벽』 27호, 37쪽.

39) 위의 글, 37-38쪽.

40) 3.1운동 이후 신교육을 통한 실력 양성을 기치로 내 건 문화운동의 전개 속에서 여성들의 향학열 역시 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고조된 것으로 보인다. 동덕여학교 교장 조동식은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물론 생도들에게는 월사금이라고는 말도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지요. 학교에서는 선생들이 등사판에 광고지를 백이어서 집집마다 차자가서 제발 짜님이나 누의가 잇스면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돈 한푼도 아니받고 공부시켜 드립니다 하고 힘써 말해도 잘 보내지들 아니했습니다. (중략) 대정구년 봄에 이르러 일반 녀자의 향학열이 늘어서 각 학교에서는 입학하려는 학생을 다 뽑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동식, 「10년 전 여학생과 지금 여학생」, 『신여성』, 1925. 1, 14-16쪽.)

허영심으로 폄훼되며, “사랑이란 말은 듣고, 맛은 못 본 조선인”<sup>41)</sup> 청년들이 연애에 부여했던 신성성은 급속하게 철회된다. 연애는 이제 “인생의 쏠수에 근거를 유한 중요한 인생의 기능”<sup>42)</sup>이 아니라 딸과 누이, 혹은 아내를 타락시키는 근대의 위험과 불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연애가 신성성을 탈각해 가면서 연애소설 역시 의미의 변전을 경험하게 된다. 전근대의 습속을 비판하고 현실의 변화를 기획하던, 이른바 식민지 조선에서 ‘정치소설’의 역할을 대행하던 연애소설은<sup>43)</sup> 1920년대 이후 여성들이 주로 애독하는 통속한 독물(讀物)을 지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추락하고, 연애소설 읽기는 군것질이나 창가 부르기, 데파트 참례 등과 더불어 신여성들의 저급한 취미로 비판되고 있다.

요사히 시장에서 염가로 판매되는 연애소설이나 일고 그러치 안으면 잡지 우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죽는 날까지 잊지 않으려해요」한 이자위 달콤한 문구를 느러노은 단편소설낫치나 보고 거기에 중독되야 연애를 부르고 헤덤비이는 자도 업지 안을 것이다. 그것은 아직도 자기에게 중심사상이 스지 못한 청년에게는 소위 「독서중독」이

41) 이광수, 「어린 벗에게」(『청춘』 9호~11호, 1917. 9~11.), 『이광수 전집』 14권, 삼중당, 1962, 31쪽.

42) 이광수, 「혼인에 대한 관견」, 『학지광』 12호.

43) 『신여성』의 발행인이었던 방정환이 한때 동인으로 참여했던 청년 문예 잡지 『신청년』(1919~1921, 경성청년구락부의 기관지적 성격)에는 ‘연애소설’이라 직접 명명된 소설들이 실렸으나, 이 소설들에서 연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예컨대 『신청년』에는 방정환이 직접 쓴 「사랑의 무덤」(『신청년』 제2호, 1919. 12)이라는 작품이 실려 있는데, 제목 앞에 ‘연애소설’이라는 명칭이 붙어있으며, “자녀를 교육하는 가정에 再讀을 권함”이라는 말이 부기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자유연애는 전근대의 습속을 비판하고 근대 주체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제로 활용된다. 『신청년』을 발굴한 한기형은 이 잡지에 수록된 나도향박영희·최승일·황석우의 소설을 검토하면서 이들 소설이 대부분 애정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고, 당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구속감과 답답함이 애정문제로 변주된 것이라 해석한다. 그러므로 한기형은 당대 ‘연애소설’이 곧 ‘정치소설’일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한기형, 「잡지 『신청년』 소개 근대문학 신자료(1)」, 『대동문화연구』 제41집, 433-436쪽 참조.

업지안타.<sup>44)</sup>

아모러나 상식을 어들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될 만한 과학방면에 독서를 시작하여서 차차 전문적으로 드러가야만 할 것은 물론이나 불행하게도 녀학생(그는 남학생 역시 그랬지만)의 머리에는 그런 짝짝한 학문가튼 것이 잘드러가지를 안는 모양입니다. 그래 모든 노력을 다 해가지고 일껏 학과의 틈을 타서 못처럼 독서한다는 것이 센티멘탈한 기분이 나는 연애소설이나 감상문가튼 것에 눈을 붓치게 되고 신문잡지는 별로 보도 안치만 기껏 본대야 런재소설이나 남녀로맨스에 그치고 만다합니다. 이리고서 남녀의 평등을 말하고 녀자의 향상을 말한다면 오히려 시일이 멀음을 한탄치 아니할 수 업는가 합니다.<sup>45)</sup>

창가를 밥먹듯하고 결혼식에 잘 몰려단이고 밤새워가며 연애소설 읽기 들너리서기 살 것도 업시 데파-트 참례하기...협담이 아니라 대개 이런 게 그들의 취미겠지요.<sup>46)</sup>

한때 “자녀를 교육하는 가정에 재독(再讀)을 권”<sup>47)</sup>하던 연애소설은 1920년대 중반의 담론 공간에서는 ‘센티멘탈한 기분을 자극하는 여성 취향의 싸구려 소설’로 그 함의가 바뀌고 그 위상 역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하자면 연애소설은 가벼운 ‘여성용 독물’로 분류되는 동시에 대표적인 ‘여성 금기독물’로 지정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필독서와 금기서를 분할하는 담론의 경합 속에서 당시 신여성들의 실제 독서 취향은 어떠했을까. 다음 장에서는 이를 검토하는 한편, 여성 잡지가 당대 여성들의 문학 독서에 개입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44) 김경재, 「결혼문제에 대한 조선청년의 빈민」, 『신여성』, 1925. 6·7, 16쪽.

45) 신 식, 앞의 글, 6-7쪽.

46) 박로아, 「여학생의 취미검토」, 『신여성』, 1931. 5, 72쪽.

47) SP생, 「연애소설 - 사랑의 무덤」, 『신청년』 2호, 1919. 12, 282쪽.

### 3. 여성들의 문학 애호와 독서 취향의 형성

중앙서림 대표 신길구는 「서점에서 본 여학생」이라는 글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독서열이 부족하나 갈수록 독서하는 여학생이 많아진다고 전제한 뒤, 여학생들이 주로 찾는 서적의 종류로 소설·동화잡지를 들고 있다. 소설의 종류로는 “노자영 군의 만든 「사랑의 불꽃」과 기타 연애소설가튼 것을 녀학생계에서 만히 사보더니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서적은 찾지도 안”으며, 그 대신으로 “문예에 관한 서적과 사상(思想)에 관한 서적을 만히 찾”<sup>48)</sup>는다고 지적한다. 『신가정』의 독서특집에 수록된 서점 주인들의 글에서도 이와 유사한 언급들이 발견된다. 박문서관의 노익형은 “전에는 연애소설이나 신소설, 또는 유행창가집 같은 것만 찾는 여자가 많더니 요새는 기생이나 여급 같은 여자이외에는 그런 책을 찾는 여자가 한 분도 없”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젊은 여성들이 “문예서적을 많이 찾는 경향이 있고 또 잡지 중에도 실용적 기사가 많은 것만을 찾”<sup>49)</sup>는 것이다. 영창서관의 강의영은 여학생보다 최근에 와선 젊은 가정부인들이 책을 많이 사간다고 언급한 뒤, 여성들의 도서 구매 경향에 대해서는 “그 전과 같이 천박한 것은 곱팡이가 슬 지경이며 창가책 같은 것도 이제는 여급 같은 이도 안 찾”는 서적이 되었고, “한참 뻥질나게 여자들이 사가던 「사랑의 불꽃」이니 무슨 「金子塔」이니 하는 미명(美名)의 서적은 영원히 몰락을 당한 것 같”<sup>50)</sup>다고 진단한다.

달고 향기 나는 연애소설의 독자로 여성의 독서 취향을 비난하던 당대의 평가와 달리 실제 여성들의 독서는 연애소설, 연애시와 같은 연애서류의 애호를 넘어 문예와 사상서 등으로 그 취향을 확대해 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sup>51)</sup> 이는 여학생들의 독후감에서도 확인되는데, 여름

48) 신길구, 「서점에서 본 여학생」, 『신여성』, 1926. 4, 41-42쪽.

49) 노익형, 「낙관되는 전도」, 『신가정』, 1934. 10, 120쪽.

50) 강의영, 「독서정도의 향상」, 『신가정』, 1934. 10, 121쪽.

51) 식민지 시기 여학생들의 주체 정립과 독서 경험에 관한 연구로는 김옥란의 「근

방학 동안 읽은 책 중 대표될 만한 것과 독후감을 보내달라는 『신가정』 측의 요구에 따라 모집된 8명의 전문학교 여학생들 중 4명의 학생이 『흙』, 『노산시조집』, 『죄와 벌』, 『불여귀』와 같은 문예서류를, 3명의 학생이 『신사상의 해결과 선도』, 『유물사관』, 『베벨의 부인론』 등 사상서를, 그리고 한 학생이 『처세와 수양』이라는 수양서를 읽고 간단한 감상을 적어보냈다.<sup>52)</sup> 독후감 모집 대상이 전문학교 이상의 여성들인 이유도 있겠으나, 서점 주인들이 확인한 바와 같이 당시 여성들의 독서경향이 남성 지식인들이 우려하는 바와는 달리 오락을 넘어 교양의 차원으로 나아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문학에 대한 여성들의 선호는 주목되는데, 이는 배화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학생들의 독서 경향을 분석한 김윤경의 「여학생의 독서현상 해부」<sup>53)</sup>에서도 확인된다. 배화여고 교감이었던 김윤경은 학교 도서관의 1년간 도서대여 기록을 통해 여학생들의 독서 경향을 분석하는데, 김윤경이 제시한 배화여고 여학생들의 1년 간 독서 통계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 서 종 류	대여횟수	도서의 성격
교과서에 대한 참고서	196	
문예(대부분이 소설)	114	소설, 시가
역사	31	

대 여성 주체로서의 여학생과 독서 체험이 있다. 김옥란은 현모양처 교육에 입각한 당대 학교교육과 갈등하던 여성들이 자신을 찾는 돌파구로 인식했던 것이 독서라는 점을 강조한다. 말하자면 여성 주체의 의식적인 활동의 장이 독서였다는 것이다. 당대 여학생들을 오직 연애소설 독자로만 규정하려는 악의적 평가와는 달리, 실제 여학생들은 연애소설을 넘어 고급문예와 사상서류 같은 보다 폭넓은 독서 욕구를 보였다고 지적한다. 김옥란, 「근대 여성주체로서의 여학생과 독서 체험」, 『상허학보』 13호, 2004, 260-272쪽 참조.

52) 「그들의 하류독서와 그 독후감」, 『신가정』, 1934. 10, 114쪽.

53) 김윤경, 「여학생의 독서현상 해부」, 『신가정』, 1934. 10, 129-133쪽.

수양서류	29	교훈 및 인격수양과 관련한 서적, 위인 성공담 등
취미서류	16	모험담, 웃음거리, 묵은 잡지 등
윤리서류	8	윤리학이나 공공도덕, 연애나 결혼에 관한 서적
철학서류	5	철학이나 인생관에 대한 학설
종교서류	4	종교에 관한 서적
사회적서류	3	사회관계나 사상에 관한 서적

김윤경은 대여횟수에서 가장 상위를 차지한 참고서류를 교과목 담당 교사의 요구에 따른 ‘비자발적’ 독서로, 그 나머지 부분을 여학생들의 ‘자발적’ 독서로 분류한다. 자발적 독서에서 압도적 상위를 차지한 것은 ‘문예물’이다. 문예물의 대여 횟수는 참고서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자발적 독서 대상이 된 다른 도서류와 비교하면 단연 우세하다. 이는 당시 여학생들의 문예류, 특히 소설 선호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성들의 독서가 문학 부문에 집중되었음은 당대 신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학교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독서하는 여성들이 낮설지 않은 풍경이 되면서, 당시 매체들은 여성의 독서열을 보도하거나 여성 독자들의 취향을 분석하는 기사를 종종 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일보』에 실린 다음의 기사 역시 이런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식계급의 녀성으로써는 다만 그 아는 데에만 쫓치었는가 그렇지 안으면 엇더한 방면의 서적을 보게되며 또한 조선녀성의 독서열은 엇더한가 이것을 도서관에 나타난 **삼년간의 조선녀성의 독서열을 보게되면 첫째로 문학방면의 서적을 보는 이가 절대다수이며** 둘째로는 사회와 교육에 대한 문제인바 이것은 가정문제 즉 육아문제라든가 의복 제조법 등이며 또한 운동방면에 대한 지식이며 그 외 사회적 상식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철학과 종교 방면이며 넷째는 경제 방면인 바 이것은 조선녀성들이 녀성 경제문제에 대하여 김히 생각하는 바가 있는 까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하여는 여기에 표시하는바 순차로 되어있는 바 **여기에 잇서서 제일만히 문학 방**

면의 서적을 보는바 이즉까지 조선문단 가운데에 여자들의 문학적 활동이 적은 것은 기이한 현상인바 압날에 잇서서 연구한 바를 발표 하게 될 쎄에는 녀성문단에 새로운 비약이 잇지 아니할가 합니다.<sup>54)</sup>

『신가정』지에 실린 김윤경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3년간의 도서관 기록을 분석한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서 당시 여성들의 독서가 문학부터 경제 부문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문학에 대한 애호가 상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기자는 문학에 대한 여성들의 이러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문학 활동이 적고 ‘여성문단’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것을 기이한 현상이라 지적한다.

문학에 접근하려는 여성들의 욕망은 『신여성』 곳곳에도 강렬하게 피력되어 있다. 이는 근대문학을 수용하려는 ‘독자’로서의 욕망과, 나아가 “인생을 향상, 창조, 발전시키는” “개혁자”<sup>55)</sup>로 부상한 근대문학의 생산자, 곧 ‘작가’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학교는 졸업하였나이다. 나는 문학공부가 소원이외다. 그러나 내 여동생 또 셋째동생까지 학교에 단기는 터인데 엇더케 아버님의 인력거 끄는 수입에서 내 학비를 엇으리잇가.<sup>56)</sup>

매호 연재되는 이태준 선생님의 『구원의 녀상』은 참말 재미잇습니다. 그러나 소설이 단 한편밖에 실리지 안어서 늘 부족한 감이 업지 안사오니 신년호부터 한편쯤 더 실어 주섯스면 좋겠는데요 편집하시는 선생님의 의견은 엇더신지요.<sup>57)</sup>

귀사에서 발행하는 네 가지 잡지 중 한 책에 한하야 매월 한 ○씩 만 빌려서 매월 작품을 발표해 볼까 하는데 그러케 하려면 귀사와 어

54) 「조선녀성의 독서열은 엇던가」, 『조선일보』, 1933. 1. 23.

55) 김억, 「예술적 생활」, 『학지광』 6호, 253쪽.

56) 이확순, 「교문을 나서면서 - 졸업생 감상담」, 『신여성』, 1924. 4, 36쪽.

57) 박순자, 「여인사론」, 『신여성』, 1931. 12, 81쪽.

써한 관계를 매저야 하는지 그것을 좀 알려 주소서. 물론 발표하여서 별 손색이 업는 자신잇는 작품을 말하는 것입니다.<sup>58)</sup>

**옛줄 말슴은 넘치를 불고하고 詩 한 편을 보내드리오니 바더보시  
고 잘못된 곳을 침삭하셔서 기재하여 주십시오** 詩의 내용은 朱乙은천  
에 대한 것입니다.<sup>59)</sup>

이제 한 달만 잇스면 학교를 나을 여자입니다. **文藝에 취미가 잇서  
그 방향으로 힘쓸랴고 하오니 엇더한 순서를 발버야될가요?** 문예통  
신학교는 업습니까?<sup>60)</sup>

식민지 여성 교육이 현모양처 교육으로 일관하고,<sup>61)</sup> 교육의 유무와 상관없이 당대 여성들이 획득할 수 있는 지위가 사실상 ‘주부’로 제한된 상황에서 독자나 작가로 문학의 장에 거처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망은 여성의 열악한 조건에 대한 반발이나 막연한 저항감 역시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식민 권력과 식민지 조선의 신가부장들이 의도하지 않게 공모한 부분이 여성 교육이기도 했다. 여성 교육의 목표를 부덕의 함양에 둔 식민 권력은 (남자)고등보통학교의 교과 내용과는 다르게 가사·재봉·수예 등의 과목을 여자고등보통학교에 개설하도록 했으며,<sup>62)</sup> 이와 같이 성별화된 교육 내용은 민간 여학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예컨대 동덕여고 교장 조동식은 여성의 교육열과 여학생의 의식 변화를 언급한 글에서 여학교의 방침이 ‘학과’와 더불어 가사나 재봉수예 등을 위주로

58) 김소순, 「여인사론」, 『신여성』, 1932. 3, 48쪽.

59) 함영여고 K생, 「여인사론」, 『신여성』, 1932. 3, 49쪽.

60) 일독자, 「여인사론」, 『신여성』, 1933. 3, 69쪽.

61) 김경일, 「식민지 여성 교육과 지식의 식민지성」, 『사회와역사』 제59집, 한국사회사학회, 83-101쪽 참조.

62) 이회경, 「1920~1930년대 식민지 조선 여성 교육의 성격」, 『한국교육사학』 제28권 제1호, 2006. 4, 170-176쪽.

한 ‘기예(技藝)’를 병행하는 것이나, 과거와 비교해 여학생들이 기예보다 학과 교육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토로한다.

우리 조선여자교육도 날로날로 진보되고 빨라서 옛날 녀학생의 보통과 졸업을 만족하던 것이 오늘에 잇서서는 고등보통학교도 만족치를 아니하고 더욱더욱 상급학교로 가려고하는 경향! 다른 무엇보다도 일반학과에 힘쓰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사조에 엿질 수업의 힘이나 주위에서 그러케 식히는 것이라고만은 볼 수 업을 것이외다. 이것이 옛날에 녀학생과 지금의 녀학생들의 차이겠지요? **지금의 녀학생들의게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기예(技藝)보담도 학과(學課)를 더 요구합니다. 현재 녀학교 방침이 기예와 학과를 평균하자는 주의나 녀학생들의 요구는 학과를 기예 이상으로 요구하면 그편으로 힘쓰는 것이 일반 녀학생의 경향이겠습니까.**<sup>63)</sup>

학과보다 ‘기예’를 여성 교육의 중심에 배치하려는 의지는 당대 남성 지식인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주요섭은 조선의 중고등 여자 교육이 지나치게 “가정과 물교섭”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조선 가정의 현실에 입각한 “가정적 교육”, “이론보다는 실제”<sup>64)</sup>교육으로 여성 교육의 내용을 강화하라고 요구한다.

현모양처의 생산에 주력하는 학교 교육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여성들의 반발 역시 감지되고 있다. 『신여성』에 투고한 한 여성 필자는 신문의 ‘가정란’이 오로지 “요리법 세탁법 재봉법가튼” 내용만 반복해 싣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여자도 사람인 이상 가정생활을 하는 한편으로

63) 조동식, 앞의 글, 15-16쪽. 1911년 발표된 조선교육령의 여자고등보통교육에 관한 조항에는 여자고등보통학교에 기예과를 두어 나이 12세 이상의 여자에게 재봉 및 수예를 전수케 하였는데, 매주 교수 시수가 학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10시간으로 배정되어 있었다. 당시 일본어가 6시수, 조선어 및 한문이 2시수였고 다른 교과목들이 1-2시간 정도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다. 이송희, 앞의 글, 203-205쪽 참조.

64) 주요섭, 「조선여자교육개선안」, 『신여성』, 1933. 10, 13-14쪽.

사회적 생활을 하는 것이니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도 조켓지만 사회가 어찌되는지 세상이 어찌케 도라가는지 그것만은 알고 잇서야 할 필요도 잇스며 알리워 줄 필요도 잇슬 것”<sup>65)</sup>이라 주장한다. ‘직업부인좌담회’에 참석한 한 여성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예술문학에 퓌 취미를 가졌”고 소설 읽기에 심취했으며, “학교서는 재봉(裁縫) 산술(算術) 가튼 것을 제일 실했”<sup>66)</sup>다고 고백하는가 하면, ‘여학교 졸업생 이동 좌담회’에 참여한 한 여성은 졸업생으로서 학교 선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교사들의 현모양처 교육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김태임(여고) : 저는 사립에서 순전히 조선인의 경영과 달라 관립학교의 지도 밋해서 자라니만큼 솧업시 불평이 만습니다. 웨 그러나 하면 여자들도 너무 무시하는 점이 하도 만습니다. 엇던 선생은 자기가 밋는 敎를 될 수 잇는 대로 우리의게까지 밋도록 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할 적이 만습니다. **그나 그뿐입니까 현모양처 여자는 남자의 밋해서 곱게 일생을 보여야 한다니 벼라별 소리만치요. 저는 선생에게 보낸다면 좀더 학생을 인형 취급 마러달라는 것이 지금 나의 생각나는 바의 하나입니다**<sup>67)</sup>

이와 같이 여성을 양처현모의 범주로 포획하려는 식민권력 및 남성 지식인들의 가부장적 욕망과 다양한 주체 정립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망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문학은 여성들이 그들에게 강요되는 현실을 넘어 다른 주체의 생성을 모색하는 일종의 해방구로 상상되었는지 모른다. 말하자면 문학에 대한 여성들의 압도적 호응의 이면

65) 박순옥, 「신문의 『가정란』」, 『신여성』, 36-37쪽.

66) 「직업부인좌담회」, 『신여성』, 43-44쪽. 이 좌담회에는 간호부, 여교원, 부인기자, 백화점원, 미용사가 참석했고, 인용한 발언을 한 여성은 ‘오엽주’라는 미용사였다.

67) 「여학교 졸업생 이동 좌담회」, 『신여성』, 1931. 5, 69쪽.

에는 여성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의 열악함이 놓여 있는 것이다.

신여성을 독자로 호출한 여성 잡지를 당시 여성들이 문학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로 인식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신여성』은 개벽사에서 발행하던 『개벽』과 마찬가지로 ‘문예란’을 독립하고 근대문예를 소개하는 한편, 독자투고를 마련해 여성 독자들의 근대적 글쓰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때문에 『신여성』과 같은 여성 매체는 학교나 가정에서 제공되는 지식 이외의 다양한 근대지식을 전달하고, 여성에게 자기표현의 가능성을 마련한 새로운 문화의 장으로 여성 독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그렇다면 『신여성』은 이러한 여성들의 지지, 혹은 문학에 대한 여성들의 욕망에 어떻게 응답해 갔을까. 여학생 또는 여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여성들을 중심 독자로 겨냥했던 『신여성』의 경우, 종합지였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근대문학 독자로 여성을 성장시키는 데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사의 구성에서 문예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기사의 1/10 정도로 협소하다.<sup>68)</sup> 이는 청년층과 지식층을 주된 독자로 상정한 『개벽』의 문예물 비중이 전체 기사의 1/3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다.<sup>69)</sup> 더욱이 『신여성』에 수록된 소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개벽』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근대문학, 근대소설의 제도화를 견인하던 1920년대 『개벽』의 문학사적 위상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이다.<sup>70)</sup> 김동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당

68) 김수진, 『1920~30년대 신여성담론과 상징의 구성』, 서울대 박사논문, 2005. 8, 179-180쪽 참조. 김수진은 『신여성』 기사 전체와 『신여성』 정간 당시 개벽사에서 간행한 잡지 『별건곤』에 수록된 여성 관련 기사를 총합하여 기사의 구성 비율을 분석했는데, 이에 따르면 『신여성』의 문예물 비중은 전체 기사의 13.5% 정도이다. 김수진은 문예물이 없는 『별건곤』의 여성란을 빼고 계산하면 『신여성』의 문예류 비중이 다소 올라가겠지만 그리 큰 차이는 없다고 지적한다.

69) 최수일, 『1920년대 문학과 『개벽』의 위상』,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2. 4, 71-74쪽 참조. 『개벽』의 문예물 비중은 약 37.5% 정도였다고 한다. 『개벽』은 문예면을 따로 독립하고 창간 초기부터 문예부장(학예부장)을 별도로 두어 문예면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종합지이면서도 문학지라고 평가될 만큼 편집진들이 문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고 최수일은 지적한다.

시 문사들이 “『창조』니 『폐허』니 『백조』니 파당적 색채를 떠나서 한 조선의 문학자로서 모두 『개벽』에 모여들”었던 것과는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1920년대 『신여성』의 문예란은 취약하다. 조선 문단의 주요 작가들을 『신여성』의 문예란에서 찾아보기란 쉽지 않으며, 박영희나 이상화가 한두 편의 소설을 수록하기도 했으나 이들 역시 창작보다는 주로 번역에 참여했다. 1920년대 『신여성』의 문예란은 창작물보다 번역물의 비중이 높았는데, 소개된 번역물은 대개 서구의 ‘전설’이나 ‘동화’와 같이 근대문학의 범주에서 배제되거나 하위범주로 밀려난 서사류가 대부분이었다. 본격적인 문학론은 현철이 1924년 『신여성』 2권6호에 쓴 「알아두어야 할 연극 이야기」 외에는 발견되지 않으며, 다만 1931년 속간 이후에 ‘외국문학 강화’라는 제명으로 올리버 골드 스미스, 윌리엄 셰익스피어, 바이런 등이 소개된 바 있고, ‘세계명작소설 행각’이라는 이름으로 『나나』, 『춘희』 등의 작품이 소개된 정도다.

『신여성』의 빈약한 문예란에 대해 독자들의 문제제기 역시 상당했다. 독자참여란인 ‘회화실’에 게재된 다음과 같은 독자들의 불만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 신여성에는 문예란이 왜 그러케 빈약합닛가. 우리 독자로는 그런 방면에 취미를 가지고 읽는 이가 만흔데 좀 소설가튼 것을 만히 실어주섯스면 감사하겠습니다.<sup>71)</sup>

70) 1920년대 근대문학 제도화에 기여한 『개벽』의 역할에 대해서는 김동인이나 백철 등에 의해서 언급된 바 있다. 김동인은 “『창조』니 『폐허』니 『백조』니 파당적 색채를 떠나서 한 조선의 문학자로서 모두 『개벽』에 모여들었”음을 환기하면서 “조선문학 발전에 있어서 『개벽』의 공적은 크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동인, 「문단30년사」, 『김동인 전집』 6, 삼중당, 1976, 33쪽.) 백철 역시 “20년대의 문예운동도 『개벽』지의 무대와 서로 분리시켜서 고찰하기 어려운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백철, 『백철문학전집 1- 한국문학의 길』, 신구문화사, 1968, 236-237쪽.)

71) 황주 S생, 「회화실」, 『신여성』, 1926. 6, 50쪽.

아무리하여도 우리 『신여성』에는 문예편이 너무 박약합니다. 좀더 훌륭한 문예를 실어 볼 수 없을까요. 이것을 읽는 것이 반드시 문예를 취해야 읽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도 매호에 상당한 소설 몇 편식은 계속적으로 실어주셨스면 매우 조흔듯합니다.<sup>72)</sup>

그런데 문예란은 왜 확장한다고 확장한다고 말씀하고 실행은 안습닛가. 우리 독자 일동은 다가티 항의하여 봅시다. 그 문제가 실현되어야지. 여러분은 엇덧습닛가?<sup>73)</sup>

4권 10호(1926. 10)에 수록된 편집실 광고에도 “지금까지 본지의 문예란이 빈약하여 아마 흥미를 끌지 못하게 된 것은 편집실에서도 꼭 유감으로 생각했었지만 독자 여러분의 불평도 여간 아니었”다는 언급이 보인다. 이러한 불만에 대해 『신여성』 편집부가 내놓은 대안은 “세계명작 중에 제일 재미있고 유익할 小説<sup>74)</sup>을 번역하여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문예란을 확충하라는 독자들의 꾸준한 요구는 1931년 속간 이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1920년대에 비해 30년대 『신여성』에는 소설의 비중이 커지고 번역물보다는 창작물이 많이 실리며 이태준이나 이효석과 같은 중견 작가가 대중적 장편을 연재하기도 했다. 이는 1930년대 신문자본에 의해서 창간된 『신가정』 등 신생 여성 잡지와 경쟁 역시 한 요인이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질이나 양에서 협소한 문예물에 비해 『신여성』의 지면을 상당 부분 차지한 읽을거리들은 애화비화·기화·야화·괴담·사실담·만문·정담기 등 허구와 사실의 경계가 모호한 ‘취미기사류’들이다. 『신여성』은 1924년 12월호에 실은 사고를 통해 신년호부터 내용과 체제를 혁신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논의와 시평’, ‘사진화보’, ‘생활개선’, ‘독자논단’, ‘실익기사’<sup>75)</sup>, ‘취미기사’, ‘창작란’으로 잡지를 구성하겠다고 밝힌다. 취미기

72) 강인애, 「회화실」, 『신여성』, 1926. 9. 94쪽.

73) 추천생, 「회화실」, 『신여성』, 1926. 10, 84쪽.

74) 「예고」, 『신여성』, 1926. 10, 28쪽.

사에 대해서는 “『신여성』의 독특한 편집법에 의하여 광대한 인기를 끄는 취미기사 은파리 쌍S 일류의 만문도 신년호부터 배전(倍前)하여 지상활약할 것”라고 덧붙이고 있다. 『신여성』의 독특한 편집법에 의거한 취미기사들, 근대문예의 범주로 분류될 수 없는 이 유사문학적 대중 독물들은 개벽사가 1926년 취미와 상식을 제창하며 창간한 본격 대중 잡지 『별건곤』에 앞서 이미 『신여성』의 지면을 채운 주요한 읽을거리였다.<sup>76)</sup> 그러므로 『신여성』을 『개벽』과 같은 층위의 엘리트 독자층을 형성한 매체로 보는 시각은<sup>77)</sup>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벽』이 지

75) ‘실익기사’에 대해 “각종 개량복제법과 가정위생, 가정과학, 실제생활에 가장 필요한 신지식 만재! 실로 새 살림살이의 친절한 선생”이라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털로 짠 의복 빨래법’, ‘양말 구녕 역는 법’, ‘털실 사는 것과 가리는 법’ 등 가정 살림에 관한 것이나, 1930년대 속간 이후로는 육아법에 관련한 내용이 실렸다. 여성을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 내에 위치화, 또는 위치하게 될 가정의 관리자로서 보는 시각이 전제된 기사구성이라 할 수 있었다.

76) 이경돈은 『별건곤』이 1920년대 중반 취미를 발견하고, 애화비화기화야화·괴담·사실담·실화·정담·기사화·야담·전설·설화·만문 등 대중적 감수성을 생산한 가벼운 읽을거리인 소설 외 서사들을 취미독물이라는 새로운 양식으로 안착시켰다고 규명한 바 있다. 『개벽』이 이들 서사물에 부여했던 계몽적 의미를 『별건곤』은 취미의 영역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이다. (이경돈, 『『별건곤』과 근대 취미독물』, 『대동문화연구』 제46집, 2004, 251-284쪽.) 취미독물의 제도화에 『별건곤』이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경돈의 연구에는 『신여성』이라는 경로가 생략되어 있다. 개벽사의 편집진들이 취미독물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실행한 장은 『신여성』이며, 이는 교육의 유무와 상관없이 여성 독자들을 ‘대중’으로 기호화한 혐의가 임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문학을 포함한 본격적인 근대지식의 장에 참여하기에는 구여성은 물론이고 근대 교육을 받은 소수의 신여성들 역시 여전히 미흡하다는 성차적 인식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성별적 시선이 『신여성』의 독특한 편집법에 의거한 ‘취미기사’가 ‘창작란’을 압도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77) 천정환, 「주체로서의 근대적 대중독자의 형성과 전개」, 『독서연구』 13호, 2005. 천정환은 1920~30년대를 기준으로 한국의 독자층을 ‘전통적 독자층’, ‘근대적 대중 독자’, ‘엘리트적 독자층’으로 구분하고, ‘엘리트적 독자층’을 전문잡지와 『개벽』, 『신여성』 등 종합지 구독자, 『개조』, 『중앙공론』 등 일본어 잡지 구독한 자들로 신문학의 순수문예작품과 외국 순수문학 소설, 일본 순문예작품 등의 향유자로 규정한다.

식인 청년을 근대적 독자로 호명하는 방식과 『신여성』이 지식인 여성을 독자로 훈육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여성』은 고급문예와 사회과학서 같은 사상서를 여성들이 읽어야 할 목록에, 구사상이나 관념을 전파하는 전근대적 독물이나 하품문예소설을 금서로 지정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신여성』에 실제 배치된 다수의 읽을거리들은 기(記)·화(話)·담(談) 등으로 명명된, 근대와 전근대, 문학과 비문학의 경계가 모호한 혼종적 취미독물이었다. 이는 ‘학교’와 더불어 근대적 주체 생산의 역할을 담당했던 ‘미디어’가 여성과 남성에게 할당한 근대적 교양의 내용이 성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근대계몽기 이후 남성 계몽주체들이 지식인 여성들을 ‘누이’, 곧 ‘하위 파트너십’의 대상으로 지시했듯이,<sup>78)</sup> 남성 지식인들에 의해 기획된 여성 미디어 역시 동일한 논리가 감지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성별화=서열화(위계화)’의 공식이며, 이는 미디어를 통한 근대 여성 독자의 형성 과정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여성용 미디어를 통해 본격문학을 향유하는 신남성 독자들과는 다른, 하위문학 혹은 취미독물을 읽는 신여성 독자들이 구성되며, 이는 남성 주체들과 ‘거의 동일하지만 아주 똑같지는 않은’<sup>79)</sup> 여성 주체가 탄생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여성을 근대적 주체로 호명하는 표면적 환대 속에 남성의 타자로 여성을 재기입하는 젠더 정치가 실행되는 장이 여성 미디어였던 셈이다.

78) 김복순, 「근대초기 여성교양의 성립과 파트너십 문화론의 계보」, 『여성문학연구』 17호, 2007, 185-192쪽참조.

79) 호미 바바 저,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186쪽. 호미 바바는 ‘거의 동일하지만 아주 똑같지는 않은’ 모방을 식민지적 주체 형성의 메커니즘이라 지적한다. 바바의 모방 개념은 또 하나의 식민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던 식민지의 남성과 여성 주체의 형성에도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4. 맺음말

『신여성』을 중심으로 근대적 여성 독자가 형성되는 과정 및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기왕의 여성 독자 연구는 대부분 문학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당대 여성들의 독서 경향을 읽어내는 자료로 여성 잡지를 단편적으로 활용해 왔다. 때문에 여성 매체가 근대 여성 독자의 형성과 독서 취향의 구성에 어떻게 관여하는 지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문잡지와 같은 미디어가 조선의 근대화를 추동한 실천 기관이자 근대문학의 형성과 제도화를 견인한 장임을 감안할 때, 여성 매체를 ‘통한’ 여성 독자의 창출과 독서 취향의 형성을 추적하는 작업은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주지하다시피 여성 잡지는 근대적 여성 주체, 이른바 신여성이라는 표상을 발명하고, 학교와 더불어 여성에게 새로운 성역할을 훈육한 장이었다. 따라서 여성의 독서를 둘러싼 여성 잡지의 담론 배치와 매체가 창안한 여성 독자의 정체를 파악하는 일은 비단 독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여성 매체가 여성들에게 할당한 교양과 매체가 기획한 여성 주체의 본질을 규명하는 작업과 연결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진행되었으며, 『신여성』을 중심 텍스트로 근대 여성 잡지가 여성의 독서를 계몽하고 지도하는 방식, 특정한 방향으로 취향을 조율하는 과정을 주로 담론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본고는 먼저 여성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와 배제해야 할 ‘금기서’를 분류하는 잡지의 언설들에 주목했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연애소설을 ‘여성 금기독물’로 지정하는 한편 ‘여성적인 읽을거리’로 성별화하고, 교육 정도와 무관하게 여성 독자들 대부분을 연애소설을 읽는 저급한 대중독자로 분류하는 상황에 착목했다. 이러한 성별 정치는 잡지가 여성 독자들의 읽을거리를 결정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여성들이 문학을 포함한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독자가 되기에 미흡하다는 매체의 판단이 본격적인 문학에 접근하고자 하는 여성 독자들의 욕망을 유예시킨 대신, 대중적인 ‘여성용 독물’을 구성·배치한 것이다. 이는 여성 잡지 속에 실제 수록된 읽을거리의 양식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며, 필자는 이후의 논문을 통해 이를 진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독자투고 등을 통해 매체가 여성 독자들을 필자로 건인하는 과정을 살핌으로써 근대 여성 독자의 형성과 여성 매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그 전체적인 면모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한 첫 번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1차자료

- 『신여성』, 『신가정』, 『여자계』, 『신청년』, 『학지광』, 『개벽』, 『조선일보』  
『이광수전집』 1권 14권 16권, 삼중당, 1962.  
『김동인전집』 6권, 삼중당, 1976.

### 2. 2차자료

- 김경일, 「식민지 여성 교육과 지식의 식민지성」, 『사회와역사』 제59집,  
한국사회사학회, 83-101쪽.  
김복순, 「근대초기 여성교양의 성립과 파트너십 문화론의 계보」, 『여성  
문학연구』 17호, 185-192쪽.  
김수진, 「신여성 담론 생산의 식민지적 구조와 『신여성』」, 『경제와사회』,  
2006년 봄호, 258쪽.  
김수진, 『1920~30년대 신여성담론과 상징의 구성』, 서울대 박사논문,  
2005. 8, 179-180쪽.  
김옥란, 「근대 여성주체로서의 여학생과 독서 체험」, 『상허학보』 13호,  
2004, 260-272쪽.  
마에다 마이 지음, 유은경·이원희 옮김, 『일본 근대 독자의 성립』, 이룸,  
2003. 161쪽.  
박찬승, 『한국근대 정치사상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2. 241쪽.  
박찬승, 『민족주의의 시대』, 경인문화사, 2007, 109쪽.  
백 철, 『백철문학전집 1- 한국문학의 길』, 신구문화사, 1968, 236-237쪽.  
백순철, 「구방 공간에서의 문학 창작과 향유」, 『여성문학연구』 14호,  
2005.  
이경돈, 「『별건곤』과 근대 취미독물」, 『대동문화연구』 제46집, 2004,

251-284쪽.

이희경, 「1920~1930년대 식민지 조선 여성 교육의 성격」, 『한국교육사학』 제28권 제1호, 2006. 4, 170-176쪽.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 1988.

정창권, 「장편 여성소설의 글쓰기 방식」, 『여성문학연구』 2호, 1999.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2』, 지식산업사, 2001.

천정환, 「주체로서의 근대적 대중독자의 형성과 전개」, 『독서연구』 13호, 2005.

최수일, 『1920년대 문학과 『개벽』의 위상』,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2. 4, 71-74쪽.

한기형, 「잡지 『신청년』 소개 근대문학 신자료(1)」, 『대동문화연구』 제41집, 2002. 433-436쪽.

호미 바바 저, 나병철 옮김,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186쪽.

<Abstract>

192,30's Woman Magazine and The  
Formation of Woman Reader  
- focus on 『New Woman』(신여성)

Kim, Kyung-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nsidering the course that the modern media for women enlightened the reading of women and on the other hand the process that women mass media restricted the women's desire for modern literature. The text for this study is the 『*New Woman*』(신여성).

The 『*New Woman*』 published on the colonial era of Korea. This magazine instructed positively the reading and writing of women. But The 『*New Women*』 was negative on the women's wants that women would like to become a modern literature writer. In modern times the literature rose the value in Korea. The modern korean elites considered a literature as the revolution changing the feudalistic korean society and highest arts. But the women were hard to connect the modern literature as the revolution and highest arts. In modern era women wanted to read a modern literature and to become a writer.

This thesis made a study consistent course and examined the gender of modern literature. I'd like to study about the particular women writing.

174 한국문학논총 제54집

Key Words : woman magazine, woman reader, modern literature, new  
woman, reading tendency

- 논문접수 : 2010년 2월 28일
- 심사완료 : 2010년 4월 10일
- 게재확정 : 2010년 4월 15일